

대림 제1주일

제 1독서 : 이사 2, 1-5

제 2독서 : 로마 13, 11-14c

복 음 : 마태 24, 37-44

순정이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 24, 44b)



길이신 이여 오소서

이 거칠고 스산한 황야의 어둠을 밝히시러
 길이신 이여 오소서
 슬픔을 딛고 일어설 희망을 주기 위해 오소서
 죽음을 딛고 일어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소서

당신은 오셔야 합니다.
 “지상은 만원이니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위로 아래로 새 길을 만들어도

실은 무엇하나 제대로 뚫리지 않는 듯한 이 땅에
 당신은 길이 되어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안으로 뿌리내린 미움과 원망과 불신의
 어둠부터 몰아 내게 하소서

〈글 : 이해인 수녀 - 전문중에서 발췌〉

깨어 기다려라!



조 정 오 신부 / 금마 천주교회

세 악마의 제자들이 선생 악마로부터 악(惡)의 학습(學習)을 끝낸 다음 학습의 결과를 시험하는 문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각자 인간(人間)을 유혹하여 파멸시킬 계획을 두목 사탄에게 보고했습니다. 첫째놈은 말하기를 “나는 인간들에게 하느님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두목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말로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놈은 “나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두목은 이번에도 실망스런 표정으로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도 속이지 못한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줄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놈은 “나는 사람들에게 급히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제서야 아주 흡족한 듯 “가라!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넉넉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 집니다. 내일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한 인간의 생애에 있어 가장 불행한 날은 그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김없이 올 해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례력상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기다림으로 출발하는 것은 전례 주기가 구원사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던 시기와 정신으로부터 전례력의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다림의 의미는 구원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희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 해마다 반복되는 전례 주간으로 생각하며 그저 들뜬 기분으로 성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방심하기에는 오늘 주일에 들려 오는 말씀은 너무 절박합니다. 얘기치 못하는 순간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없이 그저 멍한 상태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삶인지요. 그저 하루하루 밥먹고 잠자고 숨쉬며 살아가는 나날이라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삶이라기 보다는 한 날 생존을 위한 꿈틀거림에 불과한 것이 아닐런지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그래도 순간 순간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삶에 희망을 가질 때만이 의미를 지닙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그 많은 희생자들이나 백화점 임직원들 모두 어느 한 사람도 그 때가 마지막 때였음을 상상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상기시키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적어도 문맥상에 그들이 나쁜 행동을 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일을 했을 뿐이지요. 문제는 현세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 삶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대 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단단히 무장한 마음기질을 지녀야 합니다.

지도자

모 보 일(즈가리아)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권력이 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두 차례나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났고 재임 10여 년 동안 한 건의 치부나 독직(濫職)사건으로 잡음을 남기지 않았으며 진정한 주권국가 건설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 국부로 평가 받고 있다.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 받고 있는 '호치민'도 일본·프랑스·미국을 물리친 혁명투사이기 때 문만이 아니라 서민과 어울려 동고 동락을 같이한 청렴 정신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주은래'나 일본의 '미키 다케오' 총리도 청렴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네 정치현실은 어떠한가.

'건국의 아버지'로 불렸던 초대 이승만 씨는 3·15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하려다가 4·19혁명으로 하야(下野),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고 윤보선 씨는 5·16구태타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구태타로 권좌에 올랐던 박정희 씨는 집권에 눈이 멀어 '독재자'라는 꼬리표로 단체 부하의 총탄에 쓰러졌고 최규하 씨는 신군부 집권으로 도중하차의 비운을 겪었다.

12·12를 통해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씨는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다가 퇴임 후 백담사로 유배됐으나 검은 돈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은 실정이다.

더우기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를 선언했던 노태우 씨는 위선과 패덕으로 부정축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에 이르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이처럼 광복 후 6명의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는 망명과 피살, 도중하차, 유배와 구속으로 점철됐다.

어린 '프랭크린 루스벨트'가 어린 시절 백악관에 들어가 '태프트'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대통령은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래 뭘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루스벨트'는 당돌하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태프트' 대통령은 "제발 그 것만은 되지 말아라"고 타일렀다. 대통령처럼 괴롭고 외로운 자리는 없다는 뜻에서 였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

우하고 겨레의 역사를 다듬어 나가는 자리란 정녕 가시방석과 같은 것이다.

'텍사스'의 사나이 '린든 존슨'도 대통령자리의 격무를 건디다 못해 불면증에 걸리기까지 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 가면서 백악관시절을 "악몽 같았다"고 술회할 정도였다.

지도자의 요건은 권력의 크기도 아니고 성과(聲價)의 높이도 아니며 부의 부피도 아니다. 새로운 정신과 사명을 일깨워 모든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불려일으킬 수 있는 '철학적인 상'이 요구된다.

노씨 비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은 어떠한가. 까마귀들끼리 "나는 백로고 너는 까마귀"라고 싸우는 꼴이다. 역겹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누가 나라를 움직이나"를 묻는다면 선듯 꼽을 인물이 없다.

"너희중에 죄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들로 처라."(요한 8, 7)

김수환 추기경이 연세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초청 강연회에서 정치인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 들려준 예수님의 말씀이다.

12월은 1년의 끝달. 남은 31일 동안 모든 일을 청산해야 한다.

노씨는 대선 지원자금을 공개하고 정치인들 스스로 노씨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를 자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부패했다"는 진흙탕 개싸움격의 정치판에 국민들은 넌더리가 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숲정이 산책



진즉 할 일이지!

특집

주님을

- 대림절의

대림의 참뜻

전례력상 교회의 새해 시작은 대림 첫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은 기다림, 도래(到來)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앞으로 4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상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대림시기의 참뜻을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 축일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역사적인 대림, 둘째 이 세상 끝날에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미래지향적인 대림, 그리고 교회와 우리 자신 안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인 보속과 회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대림은 과거사만의 기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는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2월 16일까지는 세상의 끝, 종말에 관하여 묵상하고 17일부터 24일까지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기에 대림시기로 정한 것은, 번잡한 세상사에 시달리며 한 해를 달려온 우리들에게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좀 더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대림환의 의미

우리는 무언가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대림환은 주님의 강생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긴 시간을 셈하며,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위한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림환의 촛불을 밝히고 한 해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감사하며 모든 사람이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세상의 빛으로 모시기 위하여 이 대림환을 준비합니다.

이 촛불의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세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촛불은 성탄의 절정인 빛을 향해 단계적으로 밝아지는 광명을 나타냅니다. 푸른 나뭇가지의 등근 모습은 생명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이 대림환은 어둠과 죽음을 극복하고 빛과 생명이 승리한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하나의 촛불이 켜질 때마다 내 안에, 이 시대, 이 사회 안에 더 가까이 더 새롭게 강생하시도록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대림초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림환을 둘러싸고 다소곳이 앉아서 오랫동안 구세주 오시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절한 마음으로 그 분의 강생을 기도해야 합니다.

대림시기의 전례

주님께서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첫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마태 24, 30-44)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0652)75-0550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교형 자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박진상 한의원
 박진상
 김정연(안젤라)
 전주시 인후동 안골 사거리
 (인후 성당 앞, 전북은행 옆)
 ☎241-5553, 242-5553

늘 푸른 집
 무공해 물비누
 천연샴푸, 아기샴푸, 샴푸, 샴푸, 샴푸
 *우리일 제품 판매 개시!
 전경자(베로니카)
 ☎86-2050
 호술기 012-682-6543

기다리며

올바른 이해 -

김교동 신부 / 사목국 부국장

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는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깨어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새롭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출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깨어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남의 상징으로 대림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주일에는 세례자 요한의 구세주 오심에 대한 예고와 속죄의 권유(마태 3.1-12 참조)를 들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회개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돌려서-우리 삶의 세속적인 이익이나 속임수가 아닌-하느님의 뜻에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따라 우리의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셋째주일에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인 구세주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준비와 기쁨에 관한 말씀(마태 11, 2-11)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빛을 증언하는 요한처럼 우리의 입장도 요한의 입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예식 때 제단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는 예식을 치루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러한 요한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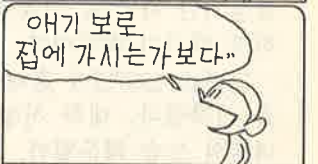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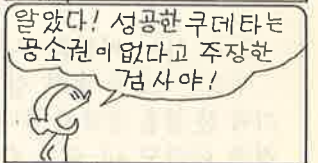
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도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만큼의 자격조차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주일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마태 1, 18~25)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한다는 것은 일생을 기쁘게 살다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또 모두가 떠나야 하는 이 세상, 다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이고, 죽은 후에 내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천 년 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정녕 준비한 사람은 선량하게 살아온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채널을 하느님의 역사에 맞추어 살으셨습니다.

이 대림시기에 우리의 삶의 채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새롭게 출발하고 깨어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드릴 값진 선물을 마련합시다.

요심이 (1161) 김병오



전주교구청간부관리직원모집
 1. 모집분야: 재산관리(부동산관리)
 ○명 2. 응모자격: 영세한 지 5년이상된 자, 해당분야 5년이상 유경험자
 ※ 나이제한 없음 3. 제출서류: 세례증명서, 경력증명서, 자필이력서, 최종 학교졸업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각 1통 4. 서류제출처: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무처(☎85-0041)
 5. 서류제출마감: 12. 11(월)까지

우편으로 하는 성서공부 시청각통신성서 신입생 모집
 신구약성서 입문(2년)
 ①구비서류: 입학원서, 최종 학교졸업증명서, 반명함판사진 2매 ②원서교부 및 접수: 매년 12월~1월 20일 ③원서대금: 4,000원 ④교부처: 전국 성바오로서원 및 본교육부 ⑤문의: (02)987-4004, (0652)252-3398

장애인 활동 기금 마련 일일 찻집
 일시: 1995년 12월 10일(일)
 장소: 대륙다방 (전주오거리 대신증권 앞)
 주최: 천주교 전주교구 장애인협의회
 ※ 교우분들의 많은 방문바랍니다.

(주) 중앙교육연구원
 · 구문(국어, 수학, 영어, 일어) : 방문지도
 · 빨간펜(전과목, 논술) : 침삭지도
 구문, 빨간펜 회원모집
 판매 할 신 모집
 백 유 공(데레사)
 ☎ (0652)223-2147
 호출기 012-688-2147

거룩한 말씀회 성소 모임
 · 일시: 매달 셋째주일 오후 2시~5시
 · 장소: 전주 교동 가정방문실 수녀원
 ·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준비물: 성서, 성가책
 · 문의: (0652)231-4446

김장 걱정 하세요? 3만원만 쓰세요!
 정한 날 정한 시간, 때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고냉지 배추, 고추 등 양질의 양념과 심자매품: · 완전 무농약 진짜 순창 전통 고추 적산 지하 115m 청정 암반수로 담아 연중 -2℃ 냉각 숙성시킵니다.
 품목: 배추김치, 알타리, 파, 깍두기, 동치미
 * 우리장곡 파실본사실본 연락주세요!
 · 주문처: 순창 성당 영농조합 (0674)53-8040~1, 52-1004
 가톨릭동민회 부설 동산매장 (0652)212-7442, FAX, (0674)53-0414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㉞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전동 천주교회

짧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짧게 살고 싶어하고 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자 한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이며 살아갈 때만이 주어지는 선물인 것 같다. 정순복(아네스 63세)씨를 처음 만나는 순간 젊은이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의 삶이 마냥 즐겁기만 하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녀는 1957년에 혼배성사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대학 시절에 동경의 대상이었던 수녀님의 모습 때문일까, 같은 교직 생활을 하던 지금의 장부(조수도, 루스 70세)가 전동 성당의 사진과 목주를 건네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 어떤 선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고 좋았단다. 돈이야 들이 벌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칭찬을 받아 들여 ‘십이단’을 외워 혼배성사를 받았다. 그러나 교리를 전혀 모르고 성당에 가면 라틴어로 무어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어 한동안은 냉담하기도 했단다.

그녀에게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은 제14차 꾸르실료였다. 꾸르실료를 통해서 지퍼진 불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들여 가면서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다. 베소라 성서 공부를 10여 년 동안 하면서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녀의 뺨이 발갛게 상기되었다.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성서 구절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로마 8, 6-7)라고 한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생활하기

때문인지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한다.

요즈음 그녀는 남다른 체험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9월 순교자 성월에 강도에게 칼을 맞아 죽을 뻔한 그녀, 그 순간 정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찌르고 가방을 빼앗아 가 버린 그를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느껴 감사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고 한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따 뜻이 돌보시나이까”하는 시편의 말씀이 그녀 안에 살아 있다.

“기적은 귀먹거리가 열리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미운 사람이 미움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기적이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았는데, 흐르는 물을 역류시킬 수 없는 순리를 이제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생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잔잔한 평화가 느껴진다.

한 때는 자식과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식이 잘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5남매를 주셨고 모두 잘 커 주었고 잘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모두 가톨릭 신자로 살고, 특히 치과를 하고 있는 딸(조주은 헬레나 씨)과는 신앙인으로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미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되어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나누어지기를 희망한다.

취재 : 편집부

96학년 천주교 전주교구 해성학원 산하 유치원 원아모집

자 격 : 신체건강한 남·여 어린이 만3세~96학년 취학 전 아동
모집기간 : 95년 11월20일~12월3일 문의-지역 유치원

진안 소화유치원 ☎ 33-2293	전주 성심유치원 ☎ 84-8347	금마 성모유치원 ☎ 53-7157
무주 소화유치원 ☎ 322-2398	김계 성모유치원 ☎ 546-3788	군산 성심유치원 ☎ 43-2454
남원 소화유치원 ☎ 33-4005	원평 성모유치원 ☎ 43-4236	군산 해성유치원 ☎ 445-8445
전주 진북유치원 ☎ 252-0384	부안 성심유치원 ☎ 84-1004	고창 새별유치원 ☎ 64-3529
전주 성체유치원 ☎ 84-8408	이리 성심유치원 ☎ 855-1028	합열 어린이집 ☎ 861-2966

LG 에어컨 전문점

* 96년 신제품 예약판매 *
· 12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12% DC
· 기본설치비 무료 · 12월18일까지
원종삼(발바라) · 원승연(도밍고)
심화공조 ☎251-0190~2

교구소식

❖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 때 : 12월 4일(월) 오후12시30분
 · 장소 : 전복일보

❖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때 : 12월 4일(월) 오후6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새 사제 연수
 · 때 : 12월 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교구청

❖ 장애인 협의회 일일차집
 · 때 : 12월 10일(일)
 · 장소 : 대륙대방
 (전주오거리 대신증권 앞)

❖ 사회복지 월례미사
 · 때 : 12월 4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김진화 신부 주소
 Don meteo Kim
 Procure de S. Sulpice
 Via Aurelia 218
 00165 ROMA ITALIA
 ☎ 39-6-376183

❖ 가톨릭 사진가회원 사진전시회
 · 때 : 12월 8일~10일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성소모임

❖ 성바오로 딸 수도회
 · 때 : 12월 3일(일) 오후2시
 · 장소 : 성바오로 서원
 · 문의 : (0652) 252-3398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 때 : 12월 10일(일) 오후2시
 · 장소 : 창인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3) 842-4132

❖ 거룩한 말씀회
 · 때 : 12월 10일(일) 오후2시
 · 장소 : 서학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84-2276

❖ 동정성모회
 · 때 : 수시로 성소상담
 · 문의 : (0652) 222-5269

■ 권해드리는 책 ■

• 주여 당신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이탈리아주교회의 신앙교리문화위원회
 최영철 / 5,600원 / 성바오로 딸
 이 교리서는 하느님 나라에 핵심을 두고 있으며 성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심도있게 설명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 삶이 곧 기도임을.....
 조지 케이소필 / 김미경
 3,500 / 성바오로 딸
 기도를 공허한 말이나 개인적인 소원을 늘어놓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삶의 근원이요, 하느님께 이르게 해 주는 참 정신에 관해 잘 알려 준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일회용 상품 사용 절제 -

보건위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일회용이어야만 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회용 상품은 단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 종이컵 1백26억개, 우유카톤팩 54억개, 컵라면 용기 1억8천만개, 기저귀 6억개가 해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답니다. 이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그냥 바라볼 수만 없습니다. 이것들이 사용되고 버려진 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이 땅의 숨통을 막을까요? 지난 해 발생한 쓰레기의 20%에 달하는 6백만 톤이 1회용품 쓰레기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일회용 상품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진선C-T촬영 · 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 · 임상병리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남문노트사

문구 · 사무용품 전문도매센터
 문구점 개업 상담 전문
 크리스마스 추리전문
 원수관
 ☎ 83-3352, 7720
 FAX 83-7721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A/S 전문점

· 6개월 무이자 판매
 · 36개월 월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전상진(베드르) 유명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84-9989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 · 이혜경(글리라)
 북전주전화국 ← 법원 중간
 ☎ 253-3232

(주)타운젠트 중앙동점 LG 패션

예복 대여 · 30%세일
 유성수(시메온)
 박선숙(안젤라)
 중앙동 풍년제과 맞은편
 ☎ 88-7038

유성주얼리

예물 및 각종 원석 가공판매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호박, 자수정, 진주
 김순희(세실리아)
 익산시 영동동 224-2
 ☎ (0653)835-166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대림 제1주일: 대림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 ◎ 오늘부터 "가"해가 시작됩니다.
 - 1. 대림절 사랑의 성금 접수: 사무실
 - 2. 대림절 특별강론: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강사-범석규(마리아) 신부님
 - 3. 가정방문 안내:
5일(화): 전 10시-중노 25반, 오후-중노 26, 27반
6일(수): 오후-중노 1, 2반
8일(금): 오전 10시-중노 9반, 오후-중노 10, 11, 12반
12일(화): 오전 10시-남노 4반
 - 4. 본당 판공 일정: 14일~16일, 19일~20일, 오후 2시~5시, 미사 전후 * 18일(월)-손님 신부님, 저녁 7시
 - 5. 성심회 떡국잔치: 6일 어머니미사 후
 - 6. 특별기도 및 성체감복: 7일 저녁미사 후
 - 7. 외곽교우 초청의 밤: 11일(월) 후 7시, 지하교리실
* 외곽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8. 모임: ①울뜨레야(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6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회장 모임(7일, 전 10시30분)
④장우회(10일, 공식미사 후)
 - 9. 고산 유자차 판매: 부녀회, 1병-10,000원
 - 10. 은혜학교 성탄카드 판매: 사무실 1세트(10장)-4,000원
 - 11. 금주 청소: 중노 3, 4반
차주 청소: 중노 5, 6반
- 지난주 봉헌금: 1,010,650원 □ 교무금: 3,344,5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오늘은 대림 제1주일(교회력 「가」해가 시작됩니다.)
 - 1. 복자 성당 30주년 및 "오시는 주님" 맞이 신앙 대강연회
8일(금) 7시반-김진소 신부님(복자성당 30년 그 회고와 전망)
 - 2. 빠스카회 임원개편: 회장-육동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 3. 성소후원회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성소후원 회비를 내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 4.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십시오.
 - 5. 95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교무금 미납되신 분은 완납바랍니다.
 - 6. 대건회 송년 모임: 6일(수) 오후 6시반, 성당에서 모입니다.
 - 7. 성체 감복: 7일(목) 저녁미사 후
 - 8. 요셉회 정기총회: 10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9. 김혁태 배드리로 부제님께서 거울 동안 본당에서 수고하셨습니다.
 - 10. 금주 모임: 성우회, 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구역분과회-5일(화) 오전 10시, 울뜨레야-5일(화) 저녁미사 후, 자모회-7일(목) 오전 10시, 여성분과회-9일(토) 오전 10시
 - 차주 모임: 해설자 모임, 꾸리아, 청년회
금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안철조 부부
 봉헌-박남수 가족
차주 전례: 해설-형입순,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이준철 가족
- 성당 청소: 12월 9일(토) 겸손하신 자의 모후Pr. 셋별Pr.
□ 지난주 봉헌금: 677,000원 □ 교무금: 1,366,5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김덕용

- ◎ 오늘은 대림 제1주일-주님 오심을 잘 준비합니다.
 - 1.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 - 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주일
 - 2. 감사: 성전보수비 봉헌-이순이(3만원) 총계-8,618,000원
 - 3. 성탄절 고백성사: 사무실에 성사표를 받아 다음주일(10일)부터
 - 4. 성모회 임원 임명: 회장-이석남, 부회장-이순자
 총무-송정자, 서기-이준봉
 - 5. 지속적인 성체조배: 7일(목) 저녁미사 후-금요일 미사 전
 - 6. 성당 청소: 금주-평화의 모후Pr.
 차주-바다의 별Pr.
 - 7.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양주태 ②이석남
 봉헌-김진규 가정
 - 8.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강덕용 ②김금자
 봉헌-김병열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52,250원 □ 교무금: 68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오늘은 대림 1주일입니다.
- 1. 금주 모임: 꾸리아-12월3일(일) 후 2시, 성당
 청년회-12월3일(일) 저녁미사 후, 회합실
 사목회-12월5일(수) 후 8시30분, 회합실
 자모회-12월7일(목) 레지오회합후, 회합실
 빈첸시오회-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 2. 차주 모임: 프란치스코삼회-12월10일(일) 후 2시, 회합실
 성심회-12월13일(수) 전 10시30분, 회합실
 울뜨레야-12월14일(목) 후 7시30분, 회합실
- 3. 판공성사 안내: ①주일학교 초·중·고 학생-12월9일(토) 후 3시 * 교구청 한병현 신부님 초청 ②전신자: 12월1일(금)~2일(일) 미사전후
- 4. 애령회 피정: 12월6일(수) 전 10시 성당, 준비물-복음성가독주, 성경책 * 관심있는 분도 초대합니다.
- 5. 기부금 영수증: 성당에 현금한(교무금, 봉헌금, 특별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십시오.
- 6. 성가 연습: 매주 수요일 후 7시30분, 성당 * 성가를 배우고 싶은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나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7. 청소 안내: 금주-정희의 동정녀, 차주-사랑하올 어머니

□ 지난주 봉헌금: 917,450원 □ 교무금: 1,979,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환

- ◎ 대림 제1주일
 - 1. 차주: ①제속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②에덕의 모후Cu(후 3시)
 ③요셉회(후 6시) ④울뜨레야(후 8시)
 - 2. 빼앗다회: 6일(전 11시) 3. 성모성심회: 7일(후 3시)
 - 4. 디비드회: 9일(후 3시)
 - 5.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30주년 미사: 12월8일 오후 2시
(교우들의 많은 미사 참여바랍니다)
 - 6. 대림절 특별강론: 강사-범석규(마리아)신부님(대림절 공식미사 중)
 - 7. 95년 레지오마리아연합 총친목회: 성마리아 꼬미시용 직속Pr. 애덕의 모후Cu. - 12월9일 오후 3시 강당
 - 8. 성모회 임원 개편: 회장-이명숙(마리아) 부회장-박금숙(사) 총무-박영주(루시아) 서기-김덕순(아네스)
 - 9. 추계 판공성사 안내: 12월5일~9일, 12월12일~15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판공성사표 배부 및 면담-총연관
 판공성사-사랑방, 사제관 2층, 성당 고백소
 - 10. 감사헌금: 10만원(익명) 감사합니다.
 - 11. 차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2,124,04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마태 24, 42)
 - ◎ 대림절 특별강론: 김동준(야고브) 신부님-4일 저녁 7시
 - 1. 공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7:30(예미자 교리반 함께)
 - 2. 96년 교무금 수입 주간: 4일 1구역-4구역, 5일 5구역-7구역
6일 8구역-10구역, 7일 11구역-15구역, 시간-오전 9시~1시, 오후 2시~8시, 장소-사무실 내(사목회 임원 참여)
 - 3. 사목회 삼일위원회: 5일 후 8시(96년 예산 및 계획서)
 - 4. 구역 반 회장 연수: 5일 전 10:30(성사표 배부)
 - 5. M.E 58차 감승회(농촌 주일): 8일~10일, 김윤균, 최혜월 부부
 - 6. 초·중·고 성탄 판공성사: 9일 후 2시부터, 10일 전 10시부터
 - 7. 성체감복 및 성시간: 7일 저녁미사 후, 대림절 묵상회
 - 8. 성탄성가 집중 연습: 5일부터 매일 저녁미사 후
 - 9. 쉬는 교우 방문: 7일 전 9시, 8구역 1-6반
 - 10. 회의: 평화의 여왕Cu. - 오늘 후 2:30. 성지회-오늘 공식미사 후, 부녀회-6일 어머니미사 후, 천주의 모후Cu. - 10일 후 2:30. 성체회-10일 공식미사 후
 - 11. 이발 무료 봉사: 10일 전 9시~12시, 사무실 뒷편
 - 12. 축! 혼인: 신랑-김동진, 신부-김이삼(막달레나)
9일 후 1시, 전동 성당(김유복(루가)씨의 녀)
 - 13. 축! 혼인: 신랑-이준철, 신부-정명숙(아네스)
10일 낮 12:30 본당(김철희 안나씨의 녀)
- 지난주 봉헌금: 1,412,120원 □ 교무금: 2,914,000원

상설 고백소: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 성당(12월달은 쉽니다.)